

글로벌 제주를 위한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33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아세안, 日本経済新聞

※ 대상 기간 : 2025.03.20.-2025.03.26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1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7
■ 중국		
-	2025년 에너지 정책 21개 중점 과제 발표	6
-	녹색 에너지 소비 촉진 위한 5개 부처 공동 정책	6
-	하이난, 홍콩·마카오·대만 주민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7
-	허난성, 국제무역 촉진 위한 22개 금융 지원 정책 시행	7
-	재정부, 2024년 중국 재정정책 실행 보고서 발표	8
-	다롄시, 2025년 입국 관광객 50% 증가 목표 정책 발표	9
-	톈진 세관, 국제무역 지원 위한 '톈진 24조' 정책 업그레이드	9
-	중국 발전 고위 포럼: 공급 측 구조 개혁 지속 추진	10
-	광둥성, 해외 주권펀드 유치 위한 투자 촉진 방안 발표	10
-	식품 안전 전 과정 규제 강화 정책 발표	11
■ 일본		
-	일본 에히메현, 산불로 1만6000가구 정전 발생	11
-	도요타, 후쿠오카 배터리 공장 착공 연기 EV 수요 감소 영향	12
-	규슈 '반도체 파크' 구체화 구마모토·기타큐슈 선도	12
-	EX-Fusion, 레이저 핵융합 연구로 차세대 발전 개발	13

-	돗토리시, ‘아이 누구나 등원제도’ 사립 보육원으로 확대	13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오사카 ‘국제 금융 도시’ 추진 협력	14
-	나라현, 남부·동부 지역 개발 규제 완화 추진	14
-	시코쿠전력, 마쓰야마에서 친환경 수소 생산 설비 준공	15
-	오사카부·시, 공공시설 재편...오사카 공립대 캠퍼스 통합	15
-	미야기현, 숙박세 도입 승인...관광 진흥 재원 활용 계획	15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첨단기술 투자로 현지 기술력 강화 추진	16
-	말레이시아 항공산업, 아시아 지역 회복세 속 성장 전망	16
-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 2025년 판매 감소 전망	17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시장 불확실성 속 기준금리 동결	17
-	인도네시아, 중국으로 두리안 수출 준비...태국 시장 점유율 위협	17
■	태국	
-	태국, 글로벌 기업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확대 지속	18
-	태국-라오스, R11 도로 건설로 경제회랑 연결 강화	18
■	필리핀	
-	필리핀, 경쟁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도입	19
■	캄보디아	
-	캄보디아, 태국과 해양자원 공동 탐사 추진	19
-	캄보디아, 독자적 공공부문 개혁 전략 재확인	19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 ✓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2025년 에너지 정책 지침을 발표하여 공급 보장 및 저탄소 전환 목표 설정. 지침에서는 석탄 생산 확대, 석유·가스 공급 안정성 강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 등을 포함하며, 총 21개 주요 과제 제시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포함한 5개 부처가 녹색 전력증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17개 실행 방안 발표. 2027년까지 제도 완비를 목표로 하며, 강제 소비와 자발적 소비를 결합한 새로운 소비 체계 구축 추진
- ✓ 하이난성은 '하이난 e등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이 온라인으로 신원 인증과 전자 서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사업 등록이 가능해져 기업 설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
- ✓ 허난성 금융당국이 외국무역 지원을 위해 22개 금융 지원 정책 발표. 중소 대외무역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수출 신용보험 지원 확대, 정책성 은행지원 정책을 통한 외환거래 및 리스크 완화 지원 등이 포함
- ✓ 중국 재정부가 2024년 재정정책 실행 보고서 발표 정부 지출 확대,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 감세 정책 시행 등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지방정부 부채 해소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포함
- ✓ 다롄시 문화관광국이 입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10대 지원책 발표. 무비자 정책 확대, 결제 편의성 향상,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며, 2025년 말까지 입국 관광객 수를 50%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 ✓ 텐진 세관이 기존의 '텐진세관 24조' 규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무역 지원 정책 발표. 통관 절차 간소화, 항공·해운 물류 지원 확대, 보세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국제무역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비용 절감 추진

- ✓ 중국 개발 고위급 포럼에서 ‘공급측 구조개혁’ 지속 추진이 강조되며, 신산업 육성, 디지털·녹색기술을 활용한 기존 산업 개혁, 공정 경쟁 질서 확립 등을 통한 경제 성장 촉진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
- ✓ 광둥성이 해외 국부펀드 유치를 위한 9개 투자 촉진 방안 발표 국유 기업과 국부펀드 간 협력 확대, 투자 유치 지원책 강화, 디지털·인공 지능·신소재 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전략 등이 포함
- ✓ 중앙정부가 식품 안전 전 과정 규제 강화를 위한 8대 조치 발표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규제 도입, 학교 및 병원 등 공공기관 식품 안전 관리 개선 등이 포함

○ 일본

- ✓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1만6000가구가 정전, 변전소가 피해를 입어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자위대 헬기를 동원한 화재 진압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 ✓ 도요타 자동차가 전기차(EV) 수요 둔화를 이유로 후쿠오카 배터리 공장 착공 연기. 기존 2025년 4월 착공 계획을 재검토하여 가을 이후로 연기 하며, 전기차 시장 상황에 맞춰 공장 생산 규모 및 품목 조정 검토
- ✓ 규슈 지역이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 구마모토현과 기타큐슈시가 중심이 되어 TSMC 및 관련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반도체 제조,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 ✓ 일본 스타트업 EX-Fusion이 레이저 핵융합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 핵융합을 통해 탄소 배출 없는 발전이 가능하며, 데이터센터와 결합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 ✓ 일본 돗토리시가 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모두를 위한 보육’ 정책 시행.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립·사립 보육원 운영을 확대하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오사카부·시가 국제 금융도시 추진을 위한 협력 협정 체결. 스타트업 금융 지원, 금융 교육 강화, 글로벌 투자 유치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오사카를 아시아 금융 허브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 ✓ 나라현이 남부·동부 지역의 개발 규제 완화. 공장 및 상업시설 개발 시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유치를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추진
- ✓ 시코쿠전력이 마쓰야마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시설 준공.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하루 30노르말 입방미터의 수소를 생산하며, 이를 산업용 보일러 연료로 공급하여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지원
- ✓ 오사카부·시가 공공시설 재편의 일환으로 오사카 공립대학 캠퍼스 통합. 기존 캠퍼스를 축소하고 신규 캠퍼스를 건설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재정 절감과 교육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
- ✓ 미야기현과 센다이시가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숙박세 도입을 승인 취득. 1박 6000엔 이상 숙박 시 300엔을 부과하며, 세수는 관광 시설 개선 및 다국어 안내 시스템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 정부가 첨단기술 투자 지원을 통해 현지 인력의 기술 역량 강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공학·과학기술 공동연구소(CREST)와 협력하여 인재 양성을 추진
- ✓ 말레이시아 항공산업이 아시아 지역 항공 수요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잉. 말레이시아항공그룹이 보잉 항공기 30대를 신규 도입하고, 글로벌 항공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 ✓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이 2025년 판매 감소가 예상.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 경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총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제조사는 저가형 차량 및 하이브리드 시장으로 전략 조정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75%로 동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루피아화 약세를 고려하여 금리를 유지하며, 향후 경기 둔화 여부에 따라 추가 조정을 검토할 계획
- ✓ 인도네시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한 두리안 수출 확대. 품질 표준 충족 및 식품 안전 강화를 통해 태국·베트남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초기에는 냉동 두리안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 추진

○ 태국

- ✓ 태국이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강화. 장기 체류 비자 발급 간소화,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디지털 경제 및 금융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 시행
- ✓ 태국과 라오스가 R11 도로 건설을 통해 경제회랑 연결 강화. 물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경 간 인프라를 확충하며, 금융 협력 및 무역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의 진행

○ 필리핀

- ✓ 필리핀 경쟁위원회가 경쟁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경쟁법 전문 과정을 신설하고, 기업 결합 심사 및 반경쟁 행위 감시 역량 강화를 목표로 법률·경제 전문가 교육 추진

○ 캄보디아

- ✓ 캄보디아가 태국과 협력하여 태국만에서 석유·가스 등 해양자원 공동 탐사 추진. 영유권 분쟁을 보류하고 협력을 우선하며, 동티모르-호주의 협력 모델을 참고하여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설정
- ✓ 캄보디아 총리가 공공부문 개혁 전략 발표. 기존 인력 감축 방식 대신 효율성 강화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며, 공공 서비스 개선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2025년 에너지 정책 21개 중점 과제 발표 -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발표한 《2025년 에너지 업무 지침》에서 공급 보장 및 녹색 전환 목표 설정. 석탄 증산 및 원유 2억 톤 이상 유지, 천연가스 생산 확대, 발전 설비 용량 36억 kW 도달 목표 제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2억 kW 추가 설치, 연간 발전량 10.6만억 kWh 달성을 목표로 설정 - 비화석 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구조 전환이 핵심 목표로 제시. 발전 설비 중 비화석 에너지원 비율을 60%로 증가시키고,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제시.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지 및 송전망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 - 21개 중점 과제에는 에너지 안보 강화, 녹색 저탄소 전환 가속화, 법제 개혁 및 기술 자립 등이 포함. 주요 과제로는 석탄 공급 기지 확충, 유전·가스전 개발 확대,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소 추가 건설 등이 명시.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전력망 효율 향상 및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도모할 예정
	○ 녹색 에너지 소비 촉진 위한 5개 부처 공동 정책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녹색전력 인증서 시장 고도화 방안》 발표. 녹색전력 시장 공급 확대, 거래 활성화, 인증 절차 정비 등 17개 실행 가능한 조치 포함.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촉진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 추진 - 2027년까지 녹색전력 인증서(녹색인증)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강제 소비와 자발적 소비를 결합한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 인증서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거래 절차를 개선하고, 국제 녹색 전력 인증서 도입을 확대할 예정. 2030년까지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 기반을 확충할 방침 - 녹색전력 인증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간 거래 제한을 철폐하고,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정비할 계획. 이를 통해 인증서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지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 녹색전력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증서 발행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
	○ 하이난, 홍콩·마카오·대만 주민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 하이난성은 ‘하이난e등록’ 플랫폼 개편을 통해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의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추진.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거주증 소지자의 온라인 신원 인증 및 전자 서명 지원. 이로 인해 기존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직접 플랫폼에서 법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존에는 주민 거주증 외에도 추가 신원 증빙 서류가 필요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인증만으로 사업 등록 가능. 신청 서류 다운로드, 인쇄, 서명 및 업로드 절차도 생략되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 행정 절차의 자동화로 대기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 - 하이난성은 외국인 및 해외 화교 기업 설립 절차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 외국 기업의 등록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서비스 일괄 제공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자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 기대
	○ 허난성, 국제무역 촉진 위한 22개 금융 지원 정책 시행 - 허난성 금융당국은 외국무역 기업 지원을 위해 22개 금융 지원 조치를 포함한 《금융지원 외국무역 안정성 강화 지침》 발표.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주요 내용으로는 대출 확대, 금융 상품 혁신, 기업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이 포함. 이를 통해 외국무역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 추진 - 허난성 정부는 대형 정책성 은행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 및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외국무역 기업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금융 지원 체계 마련. 대형 은행은 기업 대상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정책성 보험사는 수출 신용보험 확대를 추진할 계획 -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일대일로’ 정책 연계, 해외 전자상거래 및 시장 조달형 무역 지원 강화. 특히, 신흥 무역 모델인 해외 창고, 녹색 무역, 디지털 무역 발전을 적극 지원할 방침. 또한, 중소 외국무역 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 확대와 무상환 연장 대출 정책도 시행할 예정
	○ 재정부, 2024년 중국 재정정책 실행 보고서 발표 - 2024년 중국 재정정책은 경제 회복 및 구조적 개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앙정부는 총 4.06조 위안의 재정 적자를 유지하면서 총예산 지출을 28조 위안 이상 집행. 이를 통해 주요 국책 사업을 지원하고, 사회복지 및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 -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자연재해 복구 사업, 주택 보장 정책 확대 등이 포함. 특히, 국가 핵심 기술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을 도입. 지방정부의 부채 구조 조정을 위한 채권 발행 및 재정 지원도 지속될 예정 - 또한, 교육·연금·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이 증가하여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 국공립학교 교육 질 향상, 기초연금 인상,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이 편성. 특히, 저소득층 대상 생활 보조금 지급 및 긴급 구호 지원이 확대되어 사회적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다롄시, 2025년 입국 관광객 50% 증가 목표 정책 발표 - 다롄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입국 관광객 수를 50% 증가시키는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해 정책 지원 및 서비스 개선을 병행하는 ‘입국 관광 활성화 10대 조치’ 도입. 대련은 한국·일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국제 관광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 - 해당 정책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결제 편의성 확대, 의료 지원 시스템 구축, 국제 홍보 전략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 또한, 관광객이 즉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즉시 환급’ 제도를 도입하고, 입국 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광 경험을 개선할 예정 - 대련시는 국제 교류 행사를 확대하고,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 관광객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국가별 맞춤 관광 코스를 마련하고, 항공사 및 호텔업계와 협력해 패키지 상품을 출시할 예정. 이를 통해 대련을 동북아 대표 관광지로 성장시키는 전략 추진
	○ 텐진 세관, 국제무역 지원 위한 ‘텐진 24조’ 정책 업그레이드 - 텐진 해관은 외국무역 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텐진 24조’ 정책을 개편한 ‘2025년 개정안’ 발표. 해당 개정안은 시장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물류 효율성 개선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이를 통해 텐진이 중국 북부의 핵심 무역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여 무역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항만 및 물류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국제 물류 허브 구축 등이 포함. 또한, 스마트 해관 시스템을 도입해 수출입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전자 통관 절차를 확대할 계획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아울러, 신흥 무역 모델 활성화를 위해 보세 물류, 보세 정비, 보세 연료 공급 등의 분야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 또한, 공항 및 항만에서의 신속 통관 절차를 확대해 무역 흐름을 원활하게 조정할 계획
	○ 중국 발전 고위 포럼: 공급 측 구조 개혁 지속 추진 - 중국 발전 고위 포럼에서 정부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할 방침 발표. 신규 성장 동력 전환, 디지털·녹색 기술 기반 산업 혁신을 핵심 목표로 설정. 과잉 생산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을 제시 - 저가 경쟁 규제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지방 정부 및 기업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 간 협력 및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 도입. 경쟁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 서비스업 개방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금융, 디지털 무역, 녹색 무역 분야에서의 개방을 지속 추진하고, 외국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글로벌화를 가속화. 또한,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경제 협력 관계 강화를 도모
	○ 광둥성, 해외 주권펀드 유치 위한 투자 촉진 방안 발표 - 광둥성은 해외 주권펀드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9개 조치를 발표.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신소재, 생명과학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핵심 목표로 설정. 해외 주권펀드가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 - 해외 주권펀드의 광둥 내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투자 환경 개선 추진. 국유 자본과 해외 펀드 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협력을 증대하고, 글로벌 자본이 산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 주요 경제특구와 연계한 산업 투자 모델 개발 - 글로벌 자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광동성을 국제 금융 및 투자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전략 추진. 장기 가치 투자 유도, 혁신 기술 및 지속 가능 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해외 펀드 유입 촉진. 전략적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 도모
	○ 식품 안전 전 과정 규제 강화 정책 발표 - 중국 정부는 식품 안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발표. 식품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감독 체계를 개선하는 8개 조치 포함. 특히, 온라인 식품 판매 및 학교 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 - 도축, 저장, 운송 과정의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 식품 보관 및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 도입. 학교 급식 및 대형 유통망을 대상으로 안전 감독 및 위생 기준 강화 방침 수립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식품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수입 식품 안전성 확보. 식품 리콜 시스템 개선, 불량 제품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정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식품 안전 관련 법규를 통합 운영하는 체계 구축
일본	○ 일본 에히메현, 산불로 1만6000가구 정전 발생 -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서 산불로 인해 변전소가 정지되면서 약 1만6000가구가 정전 발생. 시코쿠전력은 산불과 정전의 관계를 조사 중이며,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오카야마시 남부에서도 산불이 지속되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강화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육상자위대와 소방 당국이 헬기를 동원해 공중에서 대량의 물을 투하하며 소방 활동을 진행. 일부 지역에서는 불길의 민가 근처까지 확산되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대피 정보 발령 - 오카야마시에서는 산불이 진정세를 보이며 인근 타마노시에서는 대피소를 모두 폐쇄. 이마바리시는 여전히 산불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력 복구 작업이 진행 중.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추진
	○ 도요타, 후쿠오카 배터리 공장 착공 연기 EV 수요 감소 영향 - 도요타 자동차는 후쿠오카현에 건설 예정이던 차량용 배터리 공장의 착공을 연기한다고 발표. 2025년 4월 예정이던 기공식을 가을로 연기하며, 전기차(EV) 시장의 둔화를 반영해 계획을 재검토. 후쿠오카현 지사는 계획 동결 가능성 부인 - 공장은 후쿠오카현 가이타마치에 위치한 ‘가이타항 신마쓰야마 임해공업단지’ 내에 건설 예정. 2028년 가동 목표였으나, 연기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 도요타는 해당 거점을 계속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나, 생산 품목과 규모는 재검토 중 -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도요타는 생산 전략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계획. 후쿠오카현은 도요타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향후 일정 조율을 논의할 예정
	○ 규슈 ‘반도체 파크’ 구체화 구마모토·기타큐슈 선도 - 일본 규슈 지역이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사이언스 파크’ 구상을 본격화. 구마모토현이 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며, 기타큐슈시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 표명. 대규모 반도체 생산 및 연구 단지 조성이 목표 - 구마모토현은 TSMC 및 소니그룹의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세미콘 테크노 파크를 중심으로 340헥타르 규모의 용지를 확보.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AI, 자율주행 등 차세대 반도체 활용 기업도 유치하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 - 기타큐슈시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 ASE의 입지를 활용해 연구·산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 규슈 지역 전체의 연계 전략을 통해 대만 신주 사이언스파크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거점 형성을 목표로 추진
	○ EX-Fusion, 레이저 핵융합 연구로 차세대 발전 개발 - 일본 스타트업 EX-Fusion이 레이저를 이용한 핵융합 연구를 진행. 2030년대 실용화를 목표로 차세대 발전 인프라 구축 추진. 기존 화력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소규모 운영이 가능 -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포함한 연료에 고출력 레이저를 조사하여 핵융합 반응을 유도하는 기술 개발. 생성된 중성자를 활용해 에너지를 열로 변환하는 방식 연구. 기존의 자기장 핵융합 방식과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 -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핵융합 발전소와 데이터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모델 구상. 미국과 일본의 경쟁사들도 개발에 착수하며, 핵융합 실용화 경쟁이 본격화
	○ 돗토리시, ‘아이 누구나 등원제도’ 사립 보육원으로 확대 - 돗토리시는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 이용이 가능한 ‘아이 누구나 등원제도’의 대상 시설을 확대. 2024년부터 공립 보육원 3곳에서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4곳으로 확대하고 사립 보육원도 포함할 계획 - 이용 시간은 월 10시간 이내,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운영. 1시간당 300엔의 이용료가 부과되며, 급식을 신청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 온라인 전자 신청을 도입해 이용 편의성 강화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기존 공립 보육원 외에도 사립 보육원을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 확대. 5월부터 사립 보육원도 포함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인가 절차 후 구체적인 명단을 발표할 계획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오사카 ‘국제 금융 도시’ 추진 협력 -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오사카부·오사카시가 ‘국제 금융 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 금융 리터러시 교육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통해 금융 중심지 구축을 목표로 추진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SMBC 컨슈머 파이낸스, 오사카부·오사카시가 협력하여 금융 교육 및 벤처 투자 활성화 지원. 해외 금융기관 유치 및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 마련 - 2021년 출범한 ‘국제 금융 도시 오사카 추진위원회’ 활동을 강화. 글로벌 금융 허브 구축을 목표로 일본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
	○ 나라현, 남부·동부 지역 개발 규제 완화 추진 - 나라현은 2025년까지 남부·동부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인구 감소 문제 대응. 산업 및 관광 시설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 계획 조정을 추진 - 공장 및 관광지 개발 허가 절차 간소화, 면적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특산물 가공 공장 및 캠핑장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산업을 육성할 계획 - 개발 허가 심사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심사 위원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행정 절차 간소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확대 추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시코쿠전력, 마쓰야마에서 친환경 수소 생산 설비 준공 - 시코쿠전력은 마쓰야마에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친환경 수소 (그린 수소) 생산 설비를 준공. 하루 약 30노멀 입방미터의 수소를 생산하여 지역 내 공장에 공급. 수소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설정 - 마쓰야마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생성. 생산된 수소는 보일러 제조업체인 미우라 공업의 공장 내 수소 보일러 실증 운전 에 사용될 계획 - 시코쿠전력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활용 확대를 추진. 에히메현 정부와 협력하여 수소 에너지 도입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오사카부·시, 공공시설 재편...오사카 공립대 캠퍼스 통합 -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공공시설 재편 계획을 발표. 오사카 공립대 캠퍼스를 통합하여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비 절감을 추진. 모리노미야 캠퍼스에 기존 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전략 수립 - 공공시설 유지 비용 증가에 따라 시설 집약 및 장수명화 정책을 시행. 2021년부터 지방채를 활용해 공공시설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시설을 단계적으로 재정비 - 오사카시는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산 관리 시스템을 도입.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시설 통합 및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
	○ 미야기현, 숙박세 도입 승인...관광 진흥 재원 활용 계획 - 일본 총무성이 미야기현과 센다이시의 숙박세 도입을 승인. 현 및 시는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표로 2025년 중 도입 추진. 1박 6000엔 이상 숙박객에게 1인당 300엔 부과 예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숙박세 수익은 관광지 다국어 안내 확대, 관광 인프라 개선 등에 활용 계획. 수익 배분은 샌다이시 내에서 현과 시가 각각 100엔, 200엔으로 나눠 징수하는 방식으로 조정 - 숙박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 검토. 2025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하되, 성수기 시스템 개편 부담을 감안하여 시행 일정 조율 계획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첨단기술 투자로 현지 기술력 강화 추진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는 첨단기술 도입과 현지 인력 기술력 향상을 위해 투자 지원을 추진.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 고급 인력 양성과 지역 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 - 다이슨 말레이시아는 2000년 직원 10명으로 시작해 현재 1,400명 규모로 성장. 전체 직원의 98%가 말레이시아인으로 구성되었으며, 20명의 말레이시아인 고위 경영진이 글로벌 운영을 주도하며 기술 개발을 선도 - 다이슨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공학과학기술공동연구소(CREST)와 협력해 현지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 연구개발(R&D) 시설을 통해 첨단기술 실무 교육을 확대하며 지역 내 고급 기술 인재 배출을 강화할 계획
	○ 말레이시아 항공산업, 아시아 지역 회복세 속 성장 전망 -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말레이시아 항공산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업 회복세에 따라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 유상여객킬로미터가 전년 대비 16.9%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 초과 - 말레이시아항공그룹(MAG)은 기단 현대화 전략을 통해 보잉 항공기 30대 도입을 확정. 항공기 교체 주문 계약을 3월 21일에 체결하며 항공 서비스 경쟁력 강화 추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 '2026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국제적 위상 제고 추진. 혁신 지원 및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추진할 계획
	○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 2025년 판매 감소 전망 - 홍리웅투자은행은 2025년 총산업물량(TIV)이 전년 대비 8.2% 감소한 75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말레이시아자동차협회(MAA)는 78만 대로 소폭 높은 수치를 제시하며, 시장 둔화 예상 - 신규 전기차(EV) 업체들의 시장 진입으로 가격 경쟁 심화가 예상되며 기존 완성차 제조사들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신차 출시와 마케팅 강화로 시장 활력 제고 가능성 존재 - 임금 모델 개선과 RON95 연료 보조금 조정으로 저가 차량 시장은 안정세 유지 예상. 고급 차량 시장은 소비자들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시장 불확실성 속 기준금리 동결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3월 19일 기준금리를 5.75%로 동결 결정. 글로벌 무역 불안정과 국내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정으로,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을 고려한 정책 추진 - 루피아화 가치와 자카르타 주가지수 급락으로 경제 우려가 확대.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 전망을 분석하며 금리 인하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 - 인도네시아는 2025년 경제성장률을 4.7~5.5%로 설정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 확대 및 투자 유치 계획을 추진.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강화할 계획
	○ 인도네시아, 중국으로 두리안 수출 준비...태국 시장 점유율 위협 - 인도네시아는 두리안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 냉동 두리안 수출을 통해 태국 및 베트남과 경쟁을 본격화할 계획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 중국 해관총서(GACC)는 인도네시아 두리안 농장과 포장시설을 실사하며 수출 가능성 평가 - 인도네시아는 초기 시장 진입 전략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냉동 두리안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제품과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
태국	○ 태국, 글로벌 기업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확대 지속 - 태국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하며 약 1,000억 바트(약 4조 3,04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확보. 역내 데이터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 - 태국 투자청(BoI)은 2021~2023년 동안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액이 2,900억 바트(약 12조 4,816억 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첨단 기술산업 발전 촉진 중 - 태국 정부는 스타트업 지원 및 외국인 장기체류비자(LTR) 제도 완화 정책을 통해 디지털 경제 성장 촉진 및 아세안 경제 중심지로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
	○ 태국-라오스, R11 도로 건설로 경제회랑 연결 강화 - 태국 대외경제협력청(OECD)은 치앙마이-비엔티안 경제회랑을 연결하는 R11 도로 프로젝트 추진. 230km 구간 건설로 물류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 - 태국과 라오스 재무부 차관 회담을 통해 국경 간 QR 결제 시스템 구축 및 농산물 교역 활성화 추진. 물류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중 - 양국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개발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경제 성장 기반 마련 추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 필리핀, 경쟁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도입 - 필리핀경쟁위원회(PCC)는 필리핀대학교 법과대학과 협력하여 경쟁법 전문 교육 과정 및 대학원 수료 프로그램을 개설.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전문가 육성 목표 설정 - 법학박사(JD) 과정 내 경쟁법 트랙을 신설하고, 기업결합 심사 및 반경쟁 행위 분석 등 경쟁법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신규 수료 프로그램은 64시간 집중 교육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정책 입안자,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쟁법 실무 교육 강화 추진
캄보디아	○ 캄보디아, 태국과 해양자원 공동 탐사 추진 - 캄보디아는 태국과 해양자원 공동 탐사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며, 석유 및 가스 자원 개발 기회 모색. 오랜 국경 분쟁을 일시 보류하고 경제적 이익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마련 - 양국 전문가들은 중첩수역(OCA)에서 영토 주권보다 공동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티모르-호주 협력 사례를 벤치마킹. 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법적 및 행정 절차 논의 - 캄보디아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가입을 통해 해양권 확보 및 국제 협력 강화 추진. 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과 경제 성장 도모 계획 ○ 캄보디아, 독자적 공공부문 개혁 전략 재확인 -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공공부문 개혁 방향을 발표하며, 인력 감축보다는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독자적 개혁 전략을 추진할 계획 - 캄보디아는 30개 부처 및 사무국에 총 23만 2,034명의 공무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 공무원이 9만 6,969명. 공공부문 인력 규모 유지 속 효율성 개선 추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캄보디아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공무원 역량 개발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진행. 국가 우선순위에 맞춘 개혁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행정 운영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